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기간	2018.01.14 - 2018.02.04 (3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작지 않은 규모의 건물이 여럿 있음.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안에 시설들은 난방도 잘 안되고 특히 카페테리아에서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음. 정말 여러 인종의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이어서 그런지 같이 섞여서 문화와 언어 교류를 하고 그런 건 전혀 없이 서로 자기나라 사람들과만 어울린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음. 그 대학 졸업생도 그런 점이 너무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다니는 것의 문제점이라며 동의했음.</p>
수업	<p>분반 하지 않고 3주 내내 우리학교학생 15명을 한반으로 Marriette이라는 강사분과만 수업했음. 첫 주와 둘째 주에는 바디랭귀지나 처음만난 사람과 얘기할 때 적절하지 않은 대화의 주제 등 굳이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을 법한 터무니없이 쉬운 내용의 수업을 함. 문화수업이라면서 배운 내용들은 지나치게 일반화한 동양인과 서양인 비교하기를 비롯하여 도저히 수업의 의도를 모르겠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다 갑자기 마지막 주에 토론수업을 하면서 사형제도나 선거가능 나이같은 가볍지 않은 주제를 영어로 토론하게 함. 강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시는 것 같았지만 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음. 과제는 보통 다음날 할 수업 준비가 대부분이었지만 두 번 정도 일기 쓰는 과제가 있었음. 일기 피드백 받는 것에서 3주 동안 수업할 때 배운 것보다 많이 배운 것 같음. 혹시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필요할까봐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음. 무거운 바인더와 공책을 주기 때문에 공책도 필요 없고 바인더에서 몇 장 빼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파일을 가져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음.</p>
Activity	<p>스노우슈잉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준비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추가비용 또한 없음. 하지만 활동 장소까지 가는 것만 차타고 같이 이동하고 돌아올 때는 알아서</p>

	<p>해야 함. 활동마다 과제가 조금씩 주어지는데 오로지 활동을 즐기는데 방해된다는 느낌을 받았음. 과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참고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밴쿠버 박물관 - 규모가 크지 않지만 흥미롭게 볼만한 것들이 많아서 지루하지 않고 재밌었음. • 컬링 - 생각보다는 재밌었지만 생각보다 힘들. • 아쿠아리움 - 이곳도 규모가 크지 않지만 시간 맞춰서 하는 쇼가 있어서 지루하지는 않았음 • 스노우슈잉 - 멀리 가는 활동이어서 올 때도 버스를 태워줌. 눈이 엄청 쏟아지는 설산을 걷는 활동인데 젖지 않는 옷과 신발이 필요함. 빌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옷이 없다면 굳이 이것 때문에 사지 않아도 됨. 몸이 좋지 않아 활동을 빠지고 싶다고 했지만 산 위에까지 차타고 올라가면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따뜻한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쉬라는 말을 들었음. 그 날씨에 10분정도를 걷게 하고 올림픽 링 앞에서 굳이 사진 찍어야한다고 하더니 정작 쉴 수 있는 곳은 따뜻하지 않고 시끄럽고 음식냄새만 나는 휴게소 분위기였음. 활동이 끝나고 학교 도착하니 지도자분이 자기도 그런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함. 오고 갈 때 시간이 걸리기에 3시에 끝나던 다른 활동들과 다르게 5시 정도에 끝남. • 그랜빌아일랜드 - 문 닫은 공장지대를 꾸며서 상점들을 만들어 놓은 곳. 사진 찍기 좋은 곳임. 퍼블릭 마켓이라고 재래시장 같은 곳이 있는데 먹을거리가 엄청 많음. 그랜빌아일랜드의 상점들은 전체적으로 다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 말고는 그냥 구경하는 게 좋을 듯함. • 랑가라학생과 만남 - 랑가라학생 2-3명에 한국학생 3-4명으로 5개 테이블을 만들어서 5분정도 얘기하고 한국학생이 테이블을 이동하는 식의 활동. 너무 짧은 시간동안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잘 못할 경우가 있음. 왜 굳이 테이블을 바꿔가면서 활동하게 하는지는 알 수 없음. 랑가라 학생도 준비 없이 오기 때문에 테이블마다 대부분 자기소개하고 끝나는 식이었음.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비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온다. 아침에 오면 저녁에 밝거나 아침에 밝고 저녁에 올 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안 오는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 같다. 방수되는 겂옷이랑 장화가 정말 필수인 것 같다. 우산은 쓰나 마나 다 젖게 되지만 그래도 항상 들고 다니긴 했다. 밴쿠버 우산은 저렴한 가격이 아님에도 우리나라 다이소 우산보다 별로였다. 그냥 다이소 우산 사서 쓰고 버리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p>

<p>안전</p>	<p>첫 주에는 우리 도착하기 하루 전날 총기사고로 15살 민간인이 죽었다는 사실에 안전한 나라는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저녁때 별벌 떨어 다녔다. 사실상 마약도 합법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대마초 냄새를 자주 맡곤 했는데, 큰 길로만 다닌다면 별로 위험하지 않았다. 홈리스가 정말 많은데 되도록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말 걸어도 무시하거나 잔돈 없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가는 식이었다. 확실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안전하진 않은 것 같은데 큰 길로 자기 몸 잘 사리면서 다닌다면 딱히 안전하지 않은 곳은 아니다.</p>
<p>숙소</p>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p> <p>왜 이 프로그램에서 홈스테이라는 형식을 장점인 것처럼 강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처음 홈스테이 배정받은 가정은 정말 최악이었다. 내가 받은 사전 정보와 전혀 다른 가족 구성원을 하고 있었으며 내 방이라고 소개해준 곳 책상 서랍에는 신었던 양말 한 켤레와 포크가 같이 들어있고 여기저기 쓰레기와 머리카락이 난무했다.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걸어 다닐 때나 문 여닫을 때 소리가 정말 많이 났는데 그 부분을 시끄럽다며 나한테 아침이나 밤에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방문은 잠그는 게 불가능한데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남자였기 때문에 잠잘 때 불도 끄지 못하고 전혀 안전함을 느끼며 생활하지 못했다. 가족이 모두 유창하게 프랑스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얘기하다가도 내가 듣지 않았으면 할 때마다 서로 프랑스어로 대화를 하였고 그럴 때마다 소외감을 받았다. 캐나다 가기 전 오티때 되도록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여려고 하라며 가정을 바꾸지 않았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었기 때문에 2주라는 시간동안 최대한 참고 받아들여려고 노력했지만 밤마다 방음이 안 되는 방에서 숨죽여서 혼자 우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서 고심 끝에 바꿔달라고 오피스에 가서 얘기했다. 바뀐 홈스테이 집은 홈맘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긴 했지만 밥도 잘 챙겨주시려고 하고 대화하자고 권유하기도 해 이전보단 더욱 나아졌지만 집이 지나치게 추웠다. 잠잘 때 너무 추워서 히트텍을 두 겹 입고 기모 후드 두 겹에 후리스 조끼를 입고 양말을 두 겹 신고 자야했다. 혹시라도 겨울에 홈스테이 갈 생각이라면 수면잠옷이랑 수면양말, 핫 팩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p>
<p>식사</p>	<p>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p> <p>첫 홈스테이 집에서 아침을 따로 챙겨주지 않고 냉장고에서 먹고 싶은 거 꺼내먹으라고 했는데 냉장고에 멀쩡한 음식이 없고 썩은 내가 진동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트에서 간단하게 먹을 걸 사와서 챙겨먹었다. 가정 배정받기 전에 한 음식 선호도조사는 그냥 형식상 했던 것인 듯 내가 싫어한다고 체크한 음식을 자꾸 점심으로 챙겨줘서 말로 해결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싶은 마음에 거의 사먹었다. 저녁은 당연히 집에 들어가</p>

	<p>싫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밖에서 해결했다. 두 번째 홈스테이 가정은 아주머니가 심한 기분파이셔서 아침을 챙겨주실 때가 있고 아날 때가 있었는데, 점심은 항상 잘 챙겨주셨다. 나를 위해서 유기농 식재료를 샀다고 매번 강조하셨지만 거의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싸주셨다. 두 번째 집에선 일주일밖에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은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집에서 같이 먹지 못했다.</p>
교통	<p>처음 집을 배정받으면 호스트 패밀리가 등하교하는 법을 알려주는 데 내 호스트는 자기는 자가용 타고 다녀서 잘 알지 못한다며 버스정류장에서 기사님에게 물어보고 타라고 했다. 구글맵을 이용해서 버스와 스카이트레인을 환승해서 타고 다녔고 3-40분 걸렸던 것 같다. 두 번째 가정은 걸어서 다닐만한 거리였기 때문에 30분정도 걸어서 등하교 했다. 아무래도 학교와 시내 사이에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학교와 가까운 집에 배정받으면 시내를 다니기 불편한 것 같았다. 그래도 워낙 버스와 스카이트레인이 깔끔하게 잘 되어있기 때문에 요금이 다른 존(Zone)확인만 잘 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곳저곳 다닐 수 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여행자보험	33,000 (원)	출국 전
eTA	약 7,000 (원)	출국 전
항공료	1,372,900 (원)	출국 전
식비	약 350 (달러)	500달러 환전 후 캐나다에서 100달러 인출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카드 씬
기념품	약 350 (달러)	
입장료	약 50 (달러)	
합계	출국 전 비용 제외 약 750달러 (약 7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일단, 영어 어학연수가 유일한 목적이라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3주 동안 랑가라에서 하는 수업은 정말 영어실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겨울에 유일하게 밝은 낮 시간을 무의미한 수업에 뺏기기 때문에 캐나다를 직접 접하기 어렵다. 정말 가고 싶다면

겨울보다는 여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2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가며 참여할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 돈으로 차라리 짧은 기간 바짝 여행계획 세워서 오는 게 현지인을 직접 만나는 일도 더 많고 일상영어를 접하기도 쉬울 것 같다. 숙소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 집에서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하지 못할 수밖에 없으며, 내 경우 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분들 말을 들어봐도 돈이 필요해서 호스트 가정을 하는 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홈스테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받는 장점이 전혀 없었다. 사전에 조사하는 음식 선호도도 쓸모없으며 가정에 대해 주어지는 정보도 아예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홈스테이를 기대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생필품을 제공해 주는 가정도 있지만 개인이 챙길 수 있는 건 모두 챙기는 게 좋다. 간단하게 쓰고 버리고 올 수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는 게 좋다. 옷도 아끼는 옷은 가져가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캐나다에서 보낸 나의 3주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사실 영어실력을 그런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 미리 예상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 나라의 일상을 직접 경험하며 문화를 체험하고 오자고 마음먹었었다. 그렇지만 해가 9시에 떠서 5시면 지는 겨울이었던 때문에 수업 끝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렇다고 낮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 수업이 유익한 것 또한 아니었다. 홈스테이는 내가 지쳐서 쉬고 싶을 때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았으며 항상 집 가고 싶다고 말을 해도 그 집이 내가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너무 서러웠다. 그리고 랑가라와 순천향대 모두에게 실망했다. 두 학교 모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실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홈스테이를 바꾸려고 했을 때, 홈스테이 오피스는 내 편의를 위해서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일본인 직원을 모셔두고 집을 왜 바꾸고 싶은지 편하게 얘기하라고 했지만 내가 한국어로 얘기한 걸 직원분이 이해를 해도 그걸 영어로 얘기하지 못해서 다시 내가 영어로 직접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됐었다. 랑가라가 이런 식으로 영어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건가 싶을 정도로 허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이 수업 들은 사람들이 좋았기 때문에 3주를 버틸 수 있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내가 이런 경험을 하려고 프로그램에 선발되도록 노력했던 게 아닌데, 내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을 지원해주신 게 나 이렇게 지내라고 그런 게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다. 홈스테이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어학연수 기간을 더 안 좋게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차라리 기숙사나 다른 형태의 숙소였다면 그나마 불평을 덜 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지 않았을까 싶다. 매일같이 잠잘 때 두 시간마다 일어나고 결국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는 생활을 3주 동안이나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 기간 동안 같이 지냈던 14명의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경험이 되었고, 가려고 했었던 교환학생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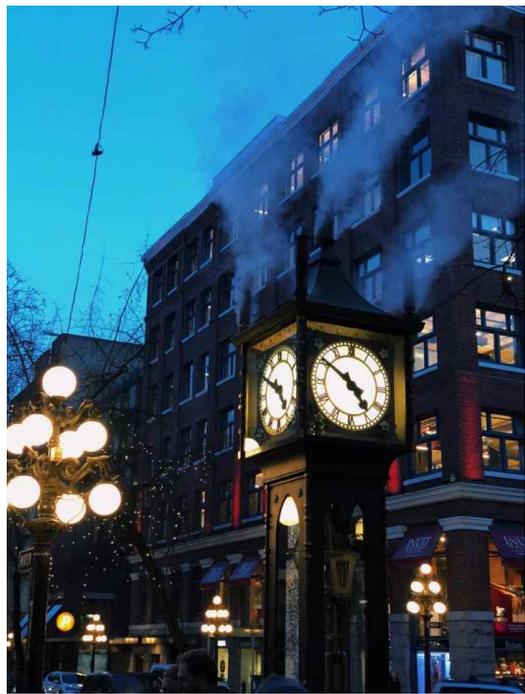
랑가라에 도착하자마자 학교 앞에서



잉글리시베이에서 본 노을



캐나다 플레이스에서 본 새



개스타운의 증기시계



그랜빌 아일랜드



B.C.주 수도 빅토리아 대사관